

# 間人主義의 관점에서 본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

박 용 구\*\*

---

## 目 次

---

1. 問題提起
  2. 間人主義論
    - (1) 日本人 集團主義論 批判
    - (2) 間人主義의 論理
  3. 間人主義의 커뮤니케이션 樣式
    - (1) 커뮤니케이션의 類型
    - (2) 間人主義와 兩立型 커뮤니케이션
  4. 結 論
- 

## 1. 問題提起

‘지구촌(global village)의 도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너의 상식은 나의 비상식, 나의 상식은 너의 비상식’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유래 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미국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체계화기를 지나 이미 이론 구축기에 접어들었다<sup>1)</sup>는 미국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통계적 수법에 의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구축, 그러한 이론의 현장적용 및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음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이 여타 지역으로 파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즉, 미국에 의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국적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통계적 수법에 의존하며, 연구대상 지역도 한정적이어서 미국을 제외한 지역 특히, 비구미지역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특수성을 동태적으로 이해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본<sup>2)</sup>에서는 미국의

---

\* 이 연구는 200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일본어과 일본문화론전공

1) 2차 대전 후 싹트기 시작한 미국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는 태동기(2차 대전 후 ~1950년대), 개시 및 보급기(1960년대), 체계화기(1970년대), 이론 구축기(1980년대~)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石井 敏、久米 昭元、遠山 淳編(2001)『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理論：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有斐閣、12~15頁

연구성과가 자연스레 소개,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본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문화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일치할지 여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문화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일본인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갈수록 일본인의 對人 커뮤니케이션 양식도 자연스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부합할 만한 연구성과가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며, 그나마 관심을 끄는 시도로서 도야마(遠山 淳)의 작업을 꼽을 수 있겠다.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신경전달 및 강물의 흐름(flow)에서 유추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片立을 지향하는 對立·同化·統合, 兩立을 지향하는 分立·同化·統合, 同立을 지향하는 合同, 創造를 지향하는 異化 혹은 統合이라는 8가지<sup>3)</sup>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8가지 기본형 속에 일본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포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욱 정교한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은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고, 개인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로서는 「恥의 文化」, 「集團我」, 「아마에」(甘え), 「縱的 社會」 등의 일본문화론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사회를 상정한 후 일본사회를 개인주의 사회의 對極에 있는 집단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전제를 가짐으로써 일본인의 대인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집단주의의 틀을 뛰어 넘어 에믹(emic)적<sup>5)</sup> 입장에서 일본문화론의 이론이 구축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입장에서 일본인의 대인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 間人主義論이다.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도야마의 시도<sup>6)</sup>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間人主義론에 의해 설명됨으로써 그 유용성을 한층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먼저, 間人主義論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본인 집단주의론의 문제점과 間人主義論의 논리를 알아보고 이어서 도야마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집단주의론이 아니라 間人主義論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일본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홀의 저작의 번역을 통해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저작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石井 敏·岡部郎一·久米昭元(1987)『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新・國際人の條件』有斐閣은 선구적 업적이다.

3)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3장 1절에서 자세히 한다. 石井 敏·久米昭元·遠山 淳編(2001), 157頁

4) 遠山 淳(1988)「日本文化と兩立型コミュニケーション」『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神田外語大學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104頁에서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創造 異化·統合이 없어 7가지였다

5) 특정사회의 문화는 내재(토착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와 외재(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 그 양상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문화의 이믹(emic), 후자는 에틱(etic)으로 불리는데 이믹은 해당 성원 자신의 인식 카테고리, 개념 분할법 체계화의 방법을 지칭함에 반해 에틱은 외래의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적 카테고리들과 카테고리간의 논리적 연관을 의미한다.

6) 도야마도 이미 1988년에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단편적인 몇 가지 예를 통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되지 못했다. 특히 일본문화론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遠山 淳(1988), 99~122頁

## 2. 間人主義論

종래의 일본인 집단주의론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며 등장한 하마구치(浜口惠俊)의 間人主義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마구치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구도 속에서 특징지워지던 일본문화의 기본적 원리는 서구에서 만들어 낸 이념에 불과하므로 일본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間人主義의 틀을 사용해야만 한다. 먼저 間人主義 문화론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인 집단주의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1) 日本人 集團主義論 批判

하마구치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본문화론은 歐美 起源의 개인중심적인 분석개념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개인」 대 「사회」라는 이분법적 논리하에서, 일본인이 행동면에서 자율성이 높은 개체적 존재(個人)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對極에 있는 「사회」 쪽을 중시하여 일본인은 조직활동에 매진하는 집단주의자라고 추론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sup>7)</sup>. 즉 “그러한 서구에 뿌리를 둔(culture bound) 개념과 이론에 따르는 한 일본인의 국민성(민족적 성격)은 대체로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집단에 예속되어 있고, 번거로운, 정확히 말해 상하의 관계를 맺고,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sup>8)</sup>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集團我」, 「아마에」(甘え), 「縱的 社會」, 「恥의 文化」 등이 일본문화론의 핵심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통해 분석된 일본인은 주체성을 결여하여 구미인과 같은 자율형의 인간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집단주의자로 규정된 것이다.

이에 하마구치는 기존의 일본인 집단주의론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틀을 대신할 새로운 일본인론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미나미(南博)의 「集團我」論<sup>9)</sup>에 대한 하마구치의 비판을 살피기로 한다. 하마구치는 미나미의 일본인론에 대해 “일본인은 타인에게 안겨 있는 이미지와 같은 ‘外的 客我를 자기 자신의 ‘自我로 의식하기 쉽고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파악한 ‘內的 客我’를 압도하여 주체성이 없는 否定我를 낳기 쉽다. 이로 인해 ‘自我’ 자체에 대해 불안정감, 불확실감이 생기는데, 이 自我不確實感을 일본적인 자아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삼고 있다”<sup>10)</sup>고 하고, 일본인이 이 自我不確實感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의식적·무의식적인 메카니즘으로서 “소속집단에 대한 의존을 바탕으로 한 ‘集團我’의 형성 혹은 집단이나 교체에 있어서 自와 他的 역할과 지위상의 관계성을 명확히 함에 의해 自我의 적절한 위치 짓기 등을 들고 있다”<sup>11)</sup>고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自我不確實感의 보상메커니즘으로 과연 일본사회·일본문화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여 「集團我」를 일본적 자아로 보는 미나미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또 도이(土居健郎)의 「아마에」論<sup>12)</sup>에 대한 하마구치의 의견을 보면 “‘아마에’는 의존하고 싶은 他

7) 浜口惠俊編(1993) 『日本型モデルとは何か?—國際化時代における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新曜社 3~4頁

8) 浜口惠俊編(1996) 『日本文化は異質か?—日本研究パラダイムの再檢討』日本放送出版協會, 280頁

9) 南博(1983) 『日本的自我』岩波書店 參照

10) 浜口惠俊(1977) 『日本らしさの再發見』日本經濟新聞社, 318頁

11) 上掲書, 318頁.

者와의 일체화에 대한 願望인데, ... 일본인은 소속집단에 대한 매몰(결국 마음껏 '아마에'하는 체험) 없이는 아이덴티티('자기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감각)를 가질 수 없다<sup>13)</sup>고 했다. 그리고 "일본인이 참으로 타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만 하는 '아마에' 인간이라면 어째서 이 정도로 왕성하게 외국으로의 기업진출이 가능했을까?"라고 하여 도이의 「아마에」論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카네(中根千枝)의 「縱的 社會」論<sup>14)</sup>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격'에 따라 집단에 참가하는 구미인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의 경우는 '場'의 공유가 집단참가의 기준이 되고, 단일집단에서의 전면적 참가·일방적 귀속의 결과로서 서로 '자격'을 달리하는 집단성원 사이에 필연적으로 종적 관계가 발달하고 따라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적 사회가 형성된다는 추론이 전개되고 있다"<sup>15)</sup>고 요약했다. 그리고 역시 집단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집단적인 「場」을 일본인의 사회생활의 근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카네의 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히마구치는 베네딕트의 「恥의 文化」論<sup>16)</sup>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sup>17)</sup>. 하나는 恥라는 것이 "사람들의 소문, 평판, 조소를 피하려는 의식이라 하더라도 恥를 중시하는 행동의 기준이 외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율적 혹은 동조적 행동인 것처럼 推斷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 후, "정말 '恥'의 行動이 타율적이고 '罪'의 行動이 자율적일까?"<sup>18)</sup>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하나는 "행위기준의 외재성·내재성이라는 근거로부터 恥나 罪가 윤리적 규범의 두 개의 대립하는 유형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점"이라 한 후, "그러나 과연 일본인의 경우 양자를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양자를 대립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인 고유의 시각에서 유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여 서양적 시각에 입각하여 일본인을 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sup>19)</sup>.

이어서 "그러나 타자의 눈을 의식하여 자기의 행위를 제어한다는 것에 대해 타자의 비평에 맞추어 타율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석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일본인의 지향 윤리를 이처럼 他者指向이 아니라 他者關與的 행위로 이해한다면 그 기본적 속성 혹은 기본적 구성원리는 '일본다움'의 公準인데 그 公準을 아웃사이드 인<sup>20)</sup>(outside-in)으로 부르고 싶다"<sup>21)</sup>고 베네딕트의 「恥의 文化」論을 반박했다.

12) 土居健郎(1971) 『「甘え」の構造』 弘文堂.

13) 浜口惠俊(1977), 319頁.

14) 中根千枝(1967) 『タテ社會の人間關係』 講談社.

15) 浜口惠俊(1977), 320頁.

16) 문화형의 레벨로 일본을 해명한 베네딕트는 구미의 「罪의 文化」(guilt culture)에 대비시켜 일본문화를 「恥의 文化」(shame culture)라고 정의했다. 정상적인 「恥의 文化」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지는 행동은 외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이에 반해 정상적인 「罪의 文化」에서는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자각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한다.

17) 浜口惠俊(1977), 108~109頁

18) 上掲書, 108~109頁

19) 上掲書, 108~109頁

20) 사회적 행동에서 對人認知의 두 가지 타입이자 집단규범에 대한 증거의 유형중 하나인 outside-in 원리란, 사회적 행위를 외재하는 기준을 증거로 삼아 행하는 자기제어원리이다. 따라서 outside-in의 원리는 일본인 나뭇의 자기제어기능을 갖춘 「他者關與的 行爲」의 公準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罪의 文化」를 갖는 구미인의 지향타입은 명확히 inside-out 형이고 그것은 유년기부터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퍼스낼리티의 내부에 강고히 장치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자기의 흔들림 없는 고정기준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히마구치는 inside-out 형에 대해 自己依據主義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적 항쟁을 격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上掲書, 305~316頁

21) 上掲書, 302~304頁

## (2) 間人主義의 論理

間人主義論은 구미 개인주의의 부정과 일본적 독자성을 내세우기 위해 「구미적 인간관」에 대한 「동양적 인간관」, 「個人·個人主義」에 대한 「間人·間人主義」, 「契約의 原理」에 대한 「緣約의 原理」라는 對概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間人主義를 설명하기로 한다.

## ① 동양적 인간관

서양인에게 일반적인 「개인중심의 인간모델」(individual-centered model of man)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개인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2)</sup>. 이에 대해 하마구치는 「개인」과는 대조적인 「간진(間人 : the contextual)」의 인간상을 구축하여 동양인의 인간관을 서양인의 個人모델과 대비시켜 間人모델이라 부르고 있다.

서양의 個人모델과 동양의 間人모델에서는 각각 행위 주체자를 「自我」(self)와 「자분」(自分), 인간성의 분석개념으로서 「퍼스널리티」(personality)와 「렌」(人)을 상징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양의 個人모델에서는 자신이 自我로서 의식된다. 이에 대해 동양의 間人모델에서는 자신을 대인관계 속에 위치지우는데 일본인은 그러한 자의식을 보통 「자분」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마구치에 앞서 「자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間人모델과 관련시켜 파악한 것은 기무라(木村敏)였다. 기무라는 自我와 「자분」을 대비시켜 “아무리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독자성, 자기의 실질이고, 그것이 自我로 불리는 이유는 항상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 일본어의 「자분」은 본래 자기를 뛰어넘은 뭔가에 대한 그 때마다의 ‘자기의 몫’(分け前)이지 항상적인 동일성을 가진 실질 내지 속성이 아니다”<sup>23)</sup>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즉, 서양인에게는 자기자신에 대한 의식이 확고한 개인주체로서 自我 이외에는 있을 수 없고, 이에 대해 「자분」이라는 것은 항상적으로 확립된 주체로서의 自我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기무라에 의하면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자기를 뛰어넘은 몫’란 ‘「자분」과 相對와의 사이(間)<sup>24)</sup>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마구치는 일본인의 「자분」이란 “自他的 사이에 공유되는 현실의 생활공간 속에서 자신이 놓인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배분된 몫”<sup>25)</sup>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비교는 행위주체자의 입장에서 본 인간관의 대비인데 서양 학자들은 인간성을 분석할 때 이를 바탕으로 개인모델에 어울리는 조작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의해 개개의 혹은 집단레벨에서의 인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마구치는 조작개념의 전형적 예로서 퍼스널리티를 들었다.

퍼스널리티의 개념에 대해 하마구치는 “개인 속에서 그 사람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할 때의 정신적 체계의 동적 조직”<sup>26)</sup>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이 정의 속에서 보이는 ‘개인 속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한 하마구치는 퍼스널리티에 대해 “개인의 내부에 소재를 한정시키거나 개인만을 대상(referent)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화적 한정이 가해져 있다”<sup>27)</sup>고 해석했다.

22) Francis L. K. Hsu(1973) "Kinship is the Key," The Center Magazine, Vol.6, No.6, p.5.

23) 木村敏(1972)『人と人の間—精神病理學的日本人』弘文堂, 154頁

24) 上掲書, p.154.

25) 浜口惠俊(1977), 72~73頁

26) G. オルポット著, 今田惠監譯(1968)『人格心理學(上)』誠信書房, 34頁

27) 浜口惠俊(1977), 78頁.

이러한 서구적 관점의 퍼스널리티 개념에 대해 하마구치는 슈(Francis L. K. Hsu)가 주장하는 중국어의 「렌」이라는 개념이 間人모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퍼스널리티가 개체 내부의 심층심리에 근거하여 인간을 파악하는 실체 개념임에 반하여 「렌」은 대인관계에 입각하여 인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렌」이야말로 間人主義의 인간관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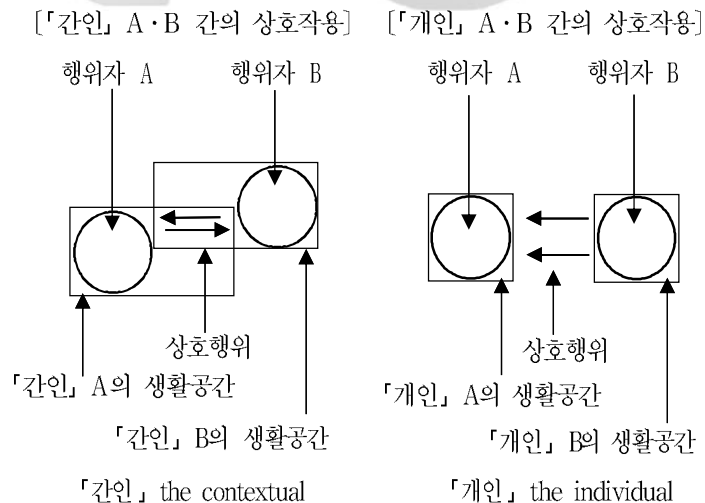
② 間人· 間人主義

하마구치는 「自分」과 「렌」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본인에게서는 집단 속에서 개개의 의사를 밀어부치려는 구미형의 개체적 자율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일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항상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關與的인 主體性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個人」과 대비되는 소위 「間人」으로 이름 지었다. 「間人」(the contextual)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人と人との間)의 人間’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對人的인 意味 속에서 연관성 그 자체를 자기자신으로 의식하는 인간의 존재’<sup>28)</sup>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하마구치는 個人과 間人の 차이에 대해 “각각에 독립한 행동주체로서의 ‘個人’은 사회적 원자라고 해야 할 존재이고 각 개체간의 상호작용은 각자의 생활공간 외측에 위치하는 객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間人’은 소위 사회적 분자이고 각 개체는 분자간 결합과 같이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생활공간을 自己 시스템 내에 보유한다. ‘個人’이 唯我的自我로서의 ‘단독적 주체(individual subject)임에 반해 ‘間人’이란 이미 알고 있는 사람·가까운 사람·소속조직 등과의 관련, 즉 ‘間柄’에 있어서 주체시스템이고 대인적 맥락을 자기의 생활공간에 내포하는 ‘관여적 주체’(referential subject)’<sup>29)</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個人과 間人이라는 인간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sup>30)</sup>.

<그림 1> 「개인」과 「간인」의 상호작용



그림에서 個人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생활공간의 외측에 있어서 수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에 대해 間人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공유된 생활공간에 놓여있어

28) 浜口惠俊(1977), 314頁.

29) 上掲書, 325頁.

30) 浜口惠俊(1996), 69頁.

서 각 사람을 성립시키는 필수요소로서 본질시 된다.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個人과 間人을 비교할 경우 “... 그러한 형태의 주체성을 ‘연대적 주체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個人에 있어서의 ‘개체적 자율성’과 비교하면 언뜻 보기에는 자기표출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대적 자율성의 소유자는 당사자가 속하는 상위시스템(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표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구미인의 개인주의가 자기를 객체시(대상화)할 때 자기자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경우 자기와 타인과의 연관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자타의 ‘間柄’ 자체가 자기를 규정하는 경우”<sup>31)</sup>라고 하여, 個人의 경우 「개체적 자율성」을 가짐에 비해 間人의 경우 「연대적 주체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하마구치는 개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주의자들의 일본인에 대한 비판은 구미중심의 시각에서 비롯된 편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연대적 자율성을 가진 일본인에게 집단주의란 말에서 연상되는 조직이나 집단에의 예속·몰입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sup>32)</sup>. 이리하여 서양의 개인주의에 대해 일본적 집단주의를 「間人=間柄主義」로 정의한 다음 인간관이란 측면에서 본 개인주의와 間人主義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33)</sup>.

個人主義는 첫째, 自己中心主義(자기자신이 인간사회의 중심적 거점이라는 확신), 둘째, 自己依據主義(스스로의 생활상의 욕구는 자기 힘에 의해서 또한 자기 책임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 타자에의 의존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타자불신을 낳는다), 셋째, 對人關係의 手段視(자율적 個人끼리는 授受를 목적으로 관계를 맺지만 그 때 전략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수단적 유용성이 문제시된다)라는 세 가지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間人主義(contextualism)는 첫째, 相互依存主義(사회생활에서는 정성이 담긴 상호부조가 불가결하며 서로 의존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 둘째, 相互信賴主義(자기행동에 대해 상대도 또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서로의 확신), 셋째, 對人關係의 本質視(일단 성립된 「間柄」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되며 무조건 그것을 유지하려 한다)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 ③緣約의 原理

일상적으로 「緣이 있다」 「뭔지 모를 緣으로」라는 말을 할 때, 緣이란 서로의 사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의 뭔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다. 즉 緣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인식이나 제어를 넘어서 존재하는 대인관계인 것이다.

이 緣은 불교적 인식에 기반한 개념으로, 불교적 인식이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31) 浜口恵俊, 公文俊平編(1982), 『日本の集團主義—その眞価を問う』有斐閣, 20~21頁

32) 결국 일본적 집단주의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공생(symboisis)을 목표로 하며, 아울러 성원간의 협조성(人和)이 중시되는데, 이것은 복지조직의 확립을 통해서 자기 충족을 도모하는 협동단체주의(corporativism)로도 불리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자마(間宏)의 일본적 집단주의에 대한, “집단주의하에서 개인과 집단의 ‘바람직한 형태는 개인과 집단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서구의 관념에서 본 개인의 미확립 상태가 나온다. 하지만, 집단주의의 이상에서 말하면 개인과 집단, 좀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개체와 전체는 대립.협조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이해) 즉 집단(이해)이며, 집단(이해) 즉 개인(이해)이다. 이 상태에서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는 외부인의 눈에는 자기희생으로 비치는 행동도 본인에게는 타자에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도출이 된다.

33) 浜口恵俊, 公文俊平編(1982) 『日本の集團主義—その眞価を問う』有斐閣 21~22頁

것에 의존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른 것과의 관련하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상대적·상관적 존재론의 입장이다.

일본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緣에 의한 만남이나 관계<sup>34)</sup>를 강조할 때 서로의 관계가 극히 상관적이고 자기 자신이 상대적 존재임을 확실한 사실로서 인정한다고 한다. 구미사회의 인간관계가 서로 독립한 개인간의 互酬的(give and take)인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사회에서의 상호간의 연결은 緣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5)</sup>.

하마구치는 이러한 형태로 성립되어 있는 대인관계의 존재방식을 서양식의 「사회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이를 「間柄」라는 말로 표현했다<sup>36)</sup>. 이리하여 대인관계라는 전체시스템에서 출발하여 개별적 관계를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間柄」라는 일본인의 대인관계를, 개인을 중심으로 성립되어 있는 서양인의 사회관계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관계가 緣으로 맺어져 있는 일본사회의 근대적 조직(예를 들어 기업체 등)은 契約의 原理가 아니라 緣約의 原理<sup>37)</sup>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緣約의 原理(kin-tract principle)란 親族原理(kinship principle)와 契約原理(contract principle)의 절충이다. 친족원리가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성원의 친족집단에 대한 자발적·무조건적인 동조경향을 의미한다면 계약원리는 사전계약에 근거하여 조직에 대해 한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緣約의 原理란 '사전계약이 조직속에서 준수되거나 말거나에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擬似親族組織에 대하여 무한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緣約의 原理」 하에서 집단주의적인 조직운영이 도모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원간의 和이다. 和의 본질은 자기와 집단의 일치된 이해를 전제로 한 상호협력체제를 지칭하는 것이고 동시에 각자의 이해가 장기적 밸런스 감각에 의해 조정되는 구조를 말한다.

하마구치는 그러나 계층적 和란 결코 정신주의적인 윤리사상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자마(間宏)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 和的 協力이란 개인이 자신의 利害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의 이해가 즉 자신의 이해라는 입장에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성원의 이해가 모두 같이 편입되어 있다고는 한정할 수 없다. 특히 성과의 배분을 둘러싸고 성원들 사이에서 대립이 생긴다. 그럴 때 '요전에는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줘라'고 하듯이 利害에 대한 장기적 밸런스가 고려된다.

이처럼 和는 성원들 사이의 이해의 장기적 밸런스-단 그것은 명확히 보증된 것이 아니라 상호의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위에 성립된 협력관계이고 집단주의 하에서 성원의 고정성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기능하는 가치관<sup>38)</sup>이라는 것이다.

### 3. 間人主義의 커뮤니케이션 樣式

34) 米山俊直은 緣을 분석적 시점에서 혈연·지연·사연으로 분류했다. 혈연은 친족관계로서의 연결이고 지연은 지역사회에서의 유대를 지칭하고 있다. 사연은 직장이나 동업이나 취미 등의 緣에 의해 연결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구메야마에 의하면 이러한 緣의 삼분법은 間柄형성에의 계기를 분류한 것이다. 그것은 동양적 입장에서 시도한 사회적 연대성의 유형적 분류로서 대단히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층 혈연·지연·사연 사이의 다이내믹스가 실증적으로 해명되면 동양적 시각으로부터의 새로운 사회관계론이 전개될 것이다.

35) 浜口惠俊(1982) 『間人主義社會 日本』 東洋經濟新報社, 21頁.

36) 上掲書, 26頁.

37) 緣約의 원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의 원리를 들 수 있다. 上掲書, 24~25頁

38) 間宏(1971) 『日本の經營-集團主義の功罪』 日本經濟新聞社, 24~25頁



(1) 커뮤니케이션의 類型

문제제기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도야마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형에는 지향성 여부에 따라 片立型, 兩立型, 同立型, 創造型의 네 가지가 존재한다. 이를 세분화하면 각 유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들이 서로 ‘反撥’(拒否)관계인지 ‘吸引’(受容)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표 2>와 같이 片立型은 對立, 同化, 統合, 兩立型은 分立, 同化, 統合, 同立型은 合同, 創造型은 異化·統合이란 하위체계를 갖는다<sup>39)</sup>.

<표 2>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8가지 기본형: 정보대사 어프로치

志向型	型	C	過 程				フロー	變 化	
			開 始	中	間	終 了		精神	行動
①片立	對 立	A						なし	なし
		B						なし	なし
②片立	同 化	A						なし	なし
		B						あり	あり
③片立	統 合	A						少し	少し
		B						少し	少し
④兩立	分 立	A						なし	なし
		B						なし	なし
⑤兩立	同 化	A						なし	なし
		B						なし	少し
⑥兩立	統 合	A						なし	少し
		B						なし	少し
⑦同立	合 同	A						なし	なし
		B						なし	なし
⑧創造	異化· 統合	A						あり	あり
		B						あり	あり

\*표의 C는 커뮤니케이션 당사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들어 있는 빗금 친 동그라미와 흐름(フロー)의 굵은 선은 강한 의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들어 있는 속이 빈 동그라미와 흐름의 가는 선은 약한 의견을 나타낸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편립형이란 「A+B→A or B」로서 「A 아니면 B」라는 식의 단선 지향성을

39) 遠山 淳「情報代謝理論より異文化交流史研究へ」, 石井 敏他編(2001), 151~152頁.

갖는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당사자 A, B가 서로 반발하여 개시단계의 강력한 의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정신(「本音」)도 행동(「建前」)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대립의 관계에 놓이든지, 한 쪽은 「本音」도 「建前」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다른 한 쪽이 둘 다 변화를 보여 상대에게 흡인되어 동화의 관계에 놓이든지, 양 쪽이 서로 「本音」나 「建前」에서 조금씩의 양보를 하여 서로 부분적으로 흡인되는 통합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양립형이란 「A+B→A and B」로서 「A도 B도」 모두라는 비선택적 형이다. 즉, ‘오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자세로 여기서는 對立拮抗의인 자세는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한다. 체념이 빨라 바로 ‘그만 됐어’(もういい)라고 생각해버리고 대항하기를 멈추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편립형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분립의 상태로 방치해 두는 양립형 분립이 지속된다.

그러나 공동체에 있어서 분립이 지속되면 집단유지의 사활문제가 대두되므로 대부분은 마지못해 하면서도 동화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양립형 동화 상태가 이어진다. 이는 상대와 대립하지 않는 입장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고 설령 자신과 대립된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표명하지 않는다는 암묵의 양해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서 「建前」를 조금은 양보하는 것이다.

「建前」의 양보는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맡긴 상대의 의견이 약해지면 ‘그래서 나는 원래 반대였는데...’라는 식으로 그 의견이 무효화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의견이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A도 B도」라는 복선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립형 통합은, 서로서로 「本音」나 「建前」에서 조금씩의 양보를 하여 서로 부분적으로 흡인되는 편립형 통합과 달리 「本音」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建前」에서 조금씩 물러서는 경우이다. 이러한 양립형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에서 회의나 교섭시에 나타난다. A, B 양자 공히 양립형 지향을 사용하여 쌍방이 타협하여 합의한 「玉虫色」 상태의 결정사항이다. 여기서도 A, B 는 공히 각자의 「本音」는 버리지 않고 「建前」만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합의에 그다지 속박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언행의 궤리나 불일치가 흔히 보인다.

동립형이란  $A+B \rightarrow A=B$ , 즉 A와 B, 양자가 같은 의견이나 정보를 가질 경우 즉  $A=B$  일 경우이기 때문에 합동이라 부르는데 이는 일치된 커뮤니케이션이므로 문제시 삼을 것이 없다<sup>40)</sup>.

## (2) 間人主義와 兩立型 커뮤니케이션

自己中心主義, 自己依據主義, 對人關係의 手段視를 속성으로 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강한 개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편립형의 어느 한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自分」과 「렌」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본인에게서는 개개의 의사를 밀어부치려는 구미형의 개체적 자율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항상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연대적 주체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강한 개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약한 의견 개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相互依存主義, 相互信賴主義, 對人關係의 本質視를 특징으로 삼는 間人主義 사회 일본에서는 양립형 커뮤니케이션을 多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그림 1>을 통해서도 적절히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림 1>에서 보았듯이 간인 A, B의 공통

40) 창조를 지향하는 異化・統合에 대한 필자의 설명은 없으나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당사자가 만나 정신과 행동 면에서 서로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 전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 영역 즉, 일본인은 자기중심과 타자중심이라는 두 가지 중심을 동시 병행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일원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양자택일을 강조하기보다는 자타의 양립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즐겨 사용하는 문화 즉, 양립형 커뮤니케이션을 기동으로 삼기 쉽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인들이 자기표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립형 커뮤니케이션 양식 중에서도 「本音」와 「建前」 모두 변화가 없는 분립이나 한 쪽의 「建前」만이 조금 변하는 동화보다는 「本音」는 유지하되 「建前」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통합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緣約의 原理 하에서 작동되는 和의 원리가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利害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의 배분을 둘러싸고는 성원들 사이에서 대립이 생길 수 있다. 그 경우 ‘요전에는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줘’라고 하듯이 利害에 대한 장기적 밸런스가 고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장기적 밸런스가 궁극적으로 양립형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양립형 동화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양립형 분립→동화→통합에 이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중 양립형 분립의 상황은 커뮤니케이션 전과정 속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한 과정으로 상정할 수 있겠지만 自他の 사이에 공유되는 현실의 생활공간 속에서 자신이 놓인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배분된 몫을 찾아가려는 間人的 특징을 생각할 때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양립형 통합을 지향하는 가운데 양립형 동화의 과정이 반복, 지속되는 상황이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생각된다.

## 4. 결 론

이상 도야마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근간으로 間人主義論에 입각하여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야마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도 間人主義論도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론과는 다른 일본인에 의한 에믹적 입장에서 접근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실제 間人主義論에 기반한 양립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문화코드로 꼽혀 온 사전협의(根回し), 「建前」와 「本音」의 분리, yes와 no의 불확실함, 만장일치, 「玉虫色」式 결론짓기 등은 자기중심과 타자중심이라는 두 가지 중심을 동시 병행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일원화하려고 하려는 間人主義에 입각한 양립형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편 도야마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間人主義論이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점도 존재한다. 즉, 도야마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기본적으로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또는 약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개시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강한 의견과 약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개시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그 유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중심과 타자중심이라는 두 가지 중심을 동시 병행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일원화하려고 하는 間人主義論에서도 약한 의견을 가진 일본인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약한 의견과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상

정해서 論을 전개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

## 【參考文獻】

- 박용구(2001) 「관계체주의와 제3의 일본문화론-집단주의를 넘어 간인주의로」 『일본연구』 제17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29쪽.
- 박용구, 신수진(2003) 「관계체주의와 한국과 일본문화의 정체성」 『일본연구』 제20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95~114쪽.
- \_\_\_\_\_(2004) 「관계체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문화의 정체성-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48집, 한국일어일문학회, 339~358쪽.
- 石井 敏·久米昭元·遠山 淳編(2001)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理論：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有斐閣, 12~15頁.
- 木村 敏(1972) 『人と人之間—精神病理學的日本人』 弘文堂, 154 頁
- G. オルポット著, 今田惠監譯(1968) 『人格心理學(上)』 誠信書房 34 頁
- 土居健郎(1971) 『「甘え」の構造』 弘文堂.
- 遠山 淳(1988) 「日本文化と兩立型コミュニケーション」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神田外語大學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99~122 頁.
- 中根千枝(1967) 『タテ社會の人間關係』 講談社
- 浜口惠俊(1996) 『日本文化は異質なのか』 日本放送出版協會, 280~298頁.
- \_\_\_\_\_(1993) 『日本型モデルとは何か?-國際化時代における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 新曜社, 3~30頁.
- \_\_\_\_\_(1982) 『人間主義社會』 日本東洋經濟新報社, 19~37 頁
- \_\_\_\_\_(1977) 『日本らしさの再發見』 日本經濟新聞社, 61~326 頁.
- 浜口惠俊, 公文俊平編(1982) 『日本的集團主義—その眞価を問う』 有斐閣, 21~22頁.
- 南博(1983) 『日本的自我』 岩波書店.
- Francis L. K. Hsu(1973) "Kinship is the Key" The Center Magazine, Vol.6, No.6, p.5.

## 要 旨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文化を傳承させる一方、文化によ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形成、規定されるという意味で、文化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あ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文化である。このような文化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相互作用を踏まえ、本論では、日本文化論の観点から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様式を考

察した。

最近、日本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分野では、歐米(特に、米國) 中心の理論では説明し難い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様式を糾明すべきであるという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提起に応えられる研究報告はまだあまり見られないが、關心を引いているものとして、遠山淳の研究があげられる。遠山淳は、人間關係のあり方を説明するために、ニューロン伝達及び川の流れ(フロー)のアプローチで、片立を志向する對立・同化・統合、兩立を志向する分立・同化・統合、同立を志向する合同、創造を志向する異化または統合という8つ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型を提示している。

一方、コミュニケーション分野での遠山淳のように、日本文化論の分野でも、「個人主義:集團主義」という歐米中心の文化論から脱皮し、日本人による土着的立場(emics) からアプローチしようとする日本文化論が登場している。日本人は、「人と人との間」を人間關係の本質にするという浜口惠俊の間人主義論がそれである。

ちなみに、遠山淳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型と浜口惠俊の間人主義論は、共通のアプローチ方法を取っている。のみならず、歐米中心の理論ではなく、土着的立場から日本社會の解明に適した理論を求めているという点で、相互補完性を持っている。したがって、本論では、浜口惠俊の間人主義論と遠山淳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型に焦点を合わせ、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様式を分析した。

その結果、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様式は、兩立型の分立→同化→統合にいたる過程であると思われる。そのうち、兩立型の分立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全過程の中で初期に登場する一つの過程として想定されると思われるが、自他の間に共有される現實の生活空間の中で、自分が置かれているその時の状況により、自分に割り当てられる分け前を探していく「間人」的特徴を考えると、長くは續かないものと思われる。つまり、兩立型の統合を志向する中で、兩立型の同化の過程が反復、持續される状況が、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様式の顯著な特徴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コミュニケーション型, 片立型, 兩立型, 間人主義,  
連帶的主體性, 自分, 人, 縁

투 고 : 2004. 2. 28  
1차 심사 : 2004. 3. 13  
2차 심사 : 2004. 4. 3

住 所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2-961-4708  
E-mail : unnande@empal.com